

# “제2의 108산사 순례...인천이 불심도시 되길”



인천불교 108성지순례에 참가한 3백여명의 인천지역불자들이 힘차게 화이팅하며 성공적인 순례를 기원하고 있다.



불갑사 주지 만당 스님이 불갑사 유래와 함께 성지순례의 꾸준한 진행을 당부하고 있다.



할머니와 함께 <금강경>을 독송하는 손자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

## 인천불교회관, 108순례 10년 대장정 첫발

“새로운 각오로 시작되는 108산사 성지 순례를 통하여 불교포교의 불을 조성하고 청소년 불자 만들기에 전력을 다한다면 인천불교의 미래 희망은 있습니다. 타 종교의 득세로 짓눌린 자존심을 회복하고 불자들의 서원인 불국정토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피 눈물 나는 고행을 감수하여야만 합니다. 커다란 서원을 세우고 모두의 힘을 합친다면 서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불교세가 약한 인천에서 성지순례를 통한 활성화가 모색됐다. 인천불교 발전을 위해 10년 성지순례의 대장정을 알린 인천불교회관(주지 일지)이 1월 14일 백제불교의 첫 시작지인 영광 불갑사에서 첫 걸음을 뒀다.

7대의 버스에 나누어 탄 300여 불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집결해 긴 시간 버스를 타고 내려오면서까지 뜨거운 원력을 세웠다. 4시간여의 여정 끝에 도착한 전남 영광 불갑사에는 아직 한 겨울의 차가움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불갑사 마당과 만세루 등 전각 곳곳에 자리한 300여 인천 불자들은 108 참회를 올리고 <금강경>을 독송하며 가람을 신심으로 가득 채웠다.

백제 침류왕 원년(384년) 인도 마라난타 스님이 이 지역을 찾았을 때 스님의 발자

취를 따라 수많은 불자들이 길을 걸었듯 주지 일지 스님의 지도하에 수백 명의 불자들은 불갑사 법당을 돌며 108 성지순례를 통한 인천불교 중흥을 발원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천불교회관 주지 일지 스님은 “인천 108산사 순례단의 시작은 인천불교회관 불자만의 불사가 아니라 인천불교를 새롭게 바꾸게 할 중요한 불사”라며 “우리 인천불자들은 이 세상의 불국정토를 서원하며 부처님의 진실한 제자로 거듭나기 위해 매달 한 번씩 사찰을 찾아 참회와 서원으로 다시 자신의 모습을 올곧게 세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 “우리 불자들이 한 발 한 발 내딛는 사찰 곳곳은 거칠고 상처투성이의 우리 마음을 부처님 전에 인도해 참된 신앙심을 증장시킬 것”이라며 “우리들은 자랑스러운 불자로 살기를 부처님 전에 서원하며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갑사 주지 만당 스님은 법회에서 108 성지순례의 서원을 보다 높게 세울 것을 당부하고 성지순례단을 격려했다.

스님은 먼저 “10년 동안 이어질 108산사 시작을 유서 깊은 백제시원지 불갑사에서

시작하게 된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인연이 아닐 수 없다”며 순례단을 환영했다.

스님은 이어 “13년 전 불갑사에 오며 불사를 시작하면서 15년 불사 계획을 세웠다. 뜻을 세우니 이뤄지더라”며 “10년간의 108산사 성지 순례로 인천불교가 더욱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어린이 청소년 법회가 진행되는 수련원과 불교대학 건립에 대한 인천불교회관의 방향 때문일까.

## 올해 500명 규모로 확대 불교열세 인천지역 중흥계획 인천불교회관내 수련관 건립 발원 불갑사에서 백제불교 시원 공부

이날 순례단에는 자녀들과 함께 참여한 불자들이 눈길을 끌었다. 어머니·할머니와 함께 온 수험생부터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한 불자들까지 인천지역 불자들의 신심을 느끼게 했다.

인천 서창동에서 아들과 함께 참여한 만경 정유산 불자(50세)는 “도선사 108산사 순례를 지켜보며 부러운 마음이 있었다. 인천지역에 순례단이 생겨 아들과 함께 참여

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정유산 불자는 “일지 스님의 원력과 함께 불자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천불교가 대중불교로, 또 생활불교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불교108산사순례단은 불갑사를 떠나 백제불교의 첫걸음이 시작된 범성포 마라난타사를 참배하고 첫 순례의 일정을 마쳤다.

노덕현 기자

■불갑사는?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면 모악리 모악산에 자리한 불갑사(佛甲寺)는 백제 침류왕(384년) 당시 마라난타 존자가 백제에 불교를 전래하면서 제일 처음 지은 불법도량이라는 점을 반영해 절이름이 붙여졌다.

천왕문 안에는 신라 진흥왕 때 연기조사가 목각하고 고종 1년에 설두선사가 불갑사를 중수하면서 폐사된, 전북 무장연기사에서 옮겨왔다고 전해지는 사천왕상이 모셔져 있다. 천왕문 우측에는 1층과 2층에 각각 종과 북이 걸린 육각누각이 있고 그 누각 옆에 참식나무 한 그루가 있다.

보물 제830호로 지정된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 건물로 정면과 측면 모두 가운데 세 짝 문을 연화문과 국화문으로 장식했다. 불상이 축연으로 모셔져 있는데 이는 남방불교 양식이다. 불갑사 안에는 만세루·명부전·일광당 그리고 요사채가 있고, 절 뒤에는 천연기념물 제112호로 지정된 참식나무 군락이 있다.

## “인천불교 성지순례로 중흥”

### 인천불교회관 주지 일지 스님

“인천지역의 불교세가 약하다는 말을 오랫동안 들어왔습니다. 이번 인천 108산사 성지순례단 결성으로 인천지역 불교를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불교세가 약한 인천에서 인천불교회관을 건립해 도심포교를 펼치고 있는 인천불교회관주지 일지스님은 첫 순례의 의미를 전했다.

스님은 “백제불교가 시작된 의미에서 순례지를 정했는데 전법의 발원 그대로 10년 대불사를 꾸준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10여 년 전 인천불교회관을 건립하며 잠재된 불심을 일깨우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절감한 스님은 지난 해 108산사 순례단을 결성하기로 결심했다. 인천불교회관이 모델로 삼은 것은 ‘선묵해자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순례기도회’. 매월 사찰순례와 함께 <금강경> 1독 및 108참회가 기본



프로그램으로 2012년 말까지 500명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일지 스님은 108산사 성지순례를 하면서 또 다른 원을 세웠다. 바로 어린이와 청소년 포교 활성화다. 순례단 일정을 청소년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토요일로 잡은 것도 그 때문이다. “10여 년 동안 성지순례를 하면서 ‘불심의 도시’ 인천이 될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스님의 얼굴은 큰원력으로 환하게 빛났다.

### 왕초보 반야심경 박사 되다



김명우 지음  
270쪽 / 값 9,500원

### 왕초보 천수경 박사 되다



성범스님 지음  
328쪽 / 값 9,500원

### 왕초보 불교 박사 되다



석지현·윤창화·일지 지음  
352쪽 / 값 9,500원

### 왕초보 불교 교리 박사 되다



고명석 지음  
316쪽 / 값 9,500원

### 왕초보 금강경 박사 되다



이제열 지음  
320쪽 / 값 9,500원

# 초짜의 불교공부 첫걸음

왕초보! 결국 불교 고수가 되다!

### 왕초보 육조단경 박사 되다



김명욱 지음  
246쪽 / 값 9,500원

### 왕초보 법화경 박사 되다



정승석 지음  
278쪽 / 값 9,500원

### 왕초보 경전 박사 되다



계환스님 지음  
302쪽 / 값 9,500원

### 왕초보 수행 박사 되다



고명석 지음  
320쪽 / 값 9,500원

## 불자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

# 『콘사이스판 불교사전』

불교의 모든 지식이 이 한 권에 다 들어 있다.

불교대학  
입학·졸업  
선물



- 총 1,216쪽, 4,950여 항목을 수록했다.
- 각 단어에 대한 설명이 상세·명확·풍부하다.
- 영어 세대를 위해 각 단어의 개념을 영어로 요약 표기했다.
- 콘사이스판으로 누구나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다.
- 크기는 작지만 내용은 백과사전 못지않게 풍부하다.

김승동 편저 | 1,216쪽 | 4,950여 개 항목 수록 | 고급 양장 | 값 38,000원

❖왕초보시리즈는 모두 '126x187mm'의 판형에 양장으로 제본되어 있습니다. 한손에 가볍게 들고 다니며 읽을 수 있습니다. ❖왕초보시리즈는 계속해서 출간될 예정입니다.